

# ‘긴장감 팽팽’... KT와 정부가 끌어주는 VR 루키 선발의 장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1탄 결승전  
현장·실재감 경험서비스 발굴 핵심  
K팝부터 힐링 콘텐츠 등 종류 다양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스퀘어 드림홀. 홀 내부는 경합을 벌이는 6개 스타트업의 발표를 앞두고 긴장감이 팽팽했다. KT가 중소벤처기업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하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제1탄 결승전을 위해서다.

결승전에 오른 6개 스타트업 대표들은 12분 간 기술 시연이나 피칭을 통해 사업과 아이디어를 선보여야 한다. 이들 6개 스타트업은 이미 52개사와의 경쟁을 뚫고 최종 선발된 스타트업이다. 이날 결승에 선발된 스타트업은 실감미디어 분야에서 실질적인 사업화를 위해 정부와 KT의 다각도의 지원을 받게 된다.

무대에 오른 스타트업 대표들은 손을 번갈아 잡으며 긴장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자신있는 목소리로 자사 아이디어를 뽐내는 등 치열한 열기를 보였다. 케이팝부터 힐링 콘텐츠, 라이브 팬미팅 등 아이디어 종류도 다양했다.

KT는 9대 과제 중 실감미디어 분야



행사장에 마련된 시연부스에서 KT 구현모 대표(오른쪽)가 슈퍼 VR로 구현된 망그로브의 VR 콘텐츠를 체험해 보고 있다. /KT

에서 ‘새로운 방식의 인터랙션 VR 서비스’를 핵심 키워드로 선정해 공모전을 진행했다. 현장에 가지 않아도 현장감과 실재감을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결선 무대에 오른 신용수 망그로브 대표는 스쿠버 다이버 강사 10년 차에 지난 3월 창업한 청년 창업가다. 그가 선보인 콘텐츠는 수중 3D 가상 현실(VR) 콘텐츠로, 프레젠테이션을 띄우자 커다란 고래 한 마리가 수중을 유유히 헤엄치는 화면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망그로브는 3D VR 콘텐츠 제작에 최적화된 카메라를 개발해 스쿠버다이

빙 가상 체험과 수중 공연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신 대표는 “스쿠버 다이버 강사로 일하며 수중 촬영도 오래했다”며 “생생한 수중 영상을 잘 표현해 아이들에게도 잘 보여주고 싶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콘텐츠를 KT 슈퍼 VR를 통해 수중 3D 영역 관련 협업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12분 간의 짧은 발표 후 KT 관계자, 학계, 혁신센터 등 6명의 평가위원들의 5분여간 주어진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수중 콘텐츠의 차별점이나 도전적 요소가 있는지, 양방향성 서비스의 유무, 콘텐츠 제작 소요기간이나 어려운 점이 있는지 등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다.



망그로브 대표가 KT와 협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나인 기자

아졌다.

신 대표는 “3D 분야 10년간 종사했다”며 “수중은 일반 촬영과 달리 입체적 요소를 표현하는데 어려워 수준에 맞는 기술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다. 콘텐츠 제작도 해외의 경우 지상 콘텐츠와 소요 기간에 큰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수중 콘텐츠로 차별점을 꾀한 망그로브는 이날 최종 결승전에 선발된 스타트업 중 하나다. 망그로브 이외에도 초등학교생들이 학교 생활을 가상 체험할 수 있는 상호작용 기반의 VR 드라마를 선보인 이너테인먼트와 3D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공간을 이동, 가상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실감형 여행 솔루션

선을 선보인 이루다가 최종 선발됐다.

이들 스타트업은 사업화 지원금 각 1억원과 기술 개발 자금 최대 4억원, 기술 특례보증 최대 20억원 등 최대 25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실감미디어 분야 사업 확장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 KT와 협업해 KT의 개인형 VR 서비스인 ‘슈퍼 VR’와의 시너지를 노릴 수 있다. 마케팅과 신규 사업 모델 발굴 등 실질적인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지원과 협력도 추진할 예정이다.

구현모 KT 대표는 “미디어 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확산과 5G 기술개발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스타트업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절실히 필요한데,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통해 역량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협업할 수 있게 되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날 깜짝 방문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통해 대용량·초고속 통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KT와 미디어 분야 스타트업들이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같이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LGU+, 차세대 5G 코어장비 필수검증 완료 구현모 KT 대표, GSMA 이사회 멤버 선임

클라우드 환경에 필요한 5G 핵심요소  
단독모드 개시 기술적 준비 완료 증명  
하드웨어 자원 최적화해 높은 성능

LG유플러스는 컨테이너 기반 5G 코어 장비(이동교환기·패킷교환기)의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컨테이너란 어디서나 실행 가능한 소형의 독립 운영체제를 말한다. 컨테이너는 클라우드 환경에 필요한 차세대 5G의 핵심요소로 평가 받고 있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글로벌 IT 기업에서는 클라우드 인프라에 컨테이너의 개념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이번 테스트에서 LG유플러스는 차세대 5G 코어 장비를 통해 안정적이고 높은 품질의 5G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단독모드(SA)를 개시할 기술적 준비가 완료됐음을 증명했다.

통신사는 컨테이너 기술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앱)을 빠르게 설치·배포하고 기능·특성별로 모듈화해 서로 다른 앱



LG유플러스 직원들이 마곡사옥에 마련된 5G 코어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LG유플러스

에서 필요한 특정 기능만 구성할 수 있게 확장할 수 있다. 기존 네트워크 가상화(NFV) 장비에 비해 CPU·메모리를 적게 사용하면서 하드웨어 자원을 최적화해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운영 중에도 고장 조치, 성능·용량 확장, 앱 배포 등 운영 업무를 자동화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

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소프트웨어정의 네트워크(SDN) 컨트롤러를 통해 전송 품질을 관리하는 ‘양방향 능동 측정 프로토콜(TWAMP)’을 전송망 구간에서 적용한 바 있다. 이 같은 기술을 통해 향후 5G 단독모드 개시를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김나인 기자

이동통신업계 최고 의사결정기구

KT는 구현모 대표(사진)가 GSMA(세계이동통신협회)의 이사회 멤버에 선임됐다고 17일 밝혔다.

GSMA의 이사회는 전세계 통신사의 CEO급 임원 등으로 구성된 이동통신업계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KT 외에도 AT&T, 버라이즌 등 주요 글로벌 통신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사회 임기는 2년으로, 이번에 선임된 구현모 대표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번 이사회 멤버 선임은 KT의 5G,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혁신역량과 글로벌 통신산업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 받은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KT는 지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이사회 멤버로 활동하며 MWC, GSMA 리더십그룹, AI 이니셔티브 등의 활동을 지속해 왔다.

한편, KT 구현모 대표는 지난 5월 ITU-UNESCO가 공동 주관하는 브로드밴드 위원회의 브로드밴드 위원으로도 선임된 바 있다. KT는 글로벌 유무선 통신산업을 이끄는 양대 협회인 GSMA와 ITU 브로드밴드 위원회 활동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글로벌 행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 SKB, 전국에 미디어창작지원센터 개소

서울, 인천, 부산 등 10곳

SK브로드밴드는 사회적 가치 창출과 시민 미디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미디어창작지원센터를 전국 10개 지역에서 개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세종, 전주, 수원, 천안 등에 조성된 SK브로드밴드 미디어창작지원센터는 시청자

미디어재단,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와의 상호협력을 통해 시민미디어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주요 지원 사업으로는 미디어창작콘텐츠 제작지원, B tv 지역채널을 통한 시민창작콘텐츠 방영, 미디어 리더십 역량 키우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이 포함된다. /김나인 기자



SK브로드밴드 인천방송 이권영 담당(왼쪽)과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장영희 센터장이 미디어창작지원센터 개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 메신저 피싱 막는다... 카카오 ‘톡 사이렌’

카카오톡, 지인사칭 범죄 사전 예방

카카오톡이 지인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을 막기 위해 카카오톡에 ‘톡 사이렌’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카카오톡은 지난 2012년 ‘스마트 인지 기술’을 적용해 해외 번호 가입자의 프로필에 국기 이미지를 노출했으며, 2019년에는 이를 한층 더 강화해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대화 상대가 해외 번호 가입자로 인식될 경우 주황색 바탕의 지구본 프로필 이미지를 보여주는 ‘글로벌 시그널’을 도입해 사용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며 선제 대응을 한

바 있다.

톡 사이렌은 사용자들의 인지 수준을 높여 지인 사칭 메신저 피싱 범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적용됐다.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대화 상대가 카카오톡으로 말을 걸 경우 해당 채팅방 진입 시점에 팝업창을 노출하며, 입장 후 대화창 상단에는 금전 요구에 대한 주의사항이 안내된다. 이와 함께 상대방이 국내 번호 가입자라면 사칭 가능성에 대한 이용자 인지를 돕는 주황색 경고성 프로필 이미지가 보여진다. 대화 상대가 해외 번호 가입자라면 기존 도입된 글로벌 시그널이 적용, 주황색 지구본 프로필 이미지가 노출된다. /구서원 기자 yun2514@